

창립 30주년 기념 고분자 대토론회를 마치고...

2006년이 우리 학회 30주년 기념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전무이사로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생각해야만 했었다. 지금까지 학회가 태동하여 30년 동안 성장하여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전임 운영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룩해 놓은 업적들이 많아 또 다른 사업을 벌이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학회장님이신 김봉식 영남대 교수님의 아이디어로 3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모금을 통하여 기존 사업들을 확대 개편하기로 하였다. 학술분야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기에 충분히 30주년 기념이 되겠지만 친목도모 사업으로 고분자 토론회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산·학·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의 장이 고분자 토론회였기 때문에 30주년 기념으로 가장 적당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산업계에서 국내 최고의 그룹 계열사 CEO 혹은 CTO 두 분을 연사님(우상선 제일모직 부사장 & 허원준 한화석유화학(주) 사장)으로 학·연계는 생산기술연구원 원장님(김기협 박사)을 연사로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오래 동안 산자부에 몸담고 있었으며 국내 에너지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해온 국장님(고정식 산업수석 전문위원)을 연사로 모시고 제주 그랜드 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기존 토론회는 통상 30명 내외의 참석자였으나 이번 대토론회는 연사 분들을 포함하여 50명 이상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친교 및 국가 에너지 정책의 어려움과 국내 IT 산업용 고분자 소재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활발한 질의응답으로 성황리에 30주년 기념 고분자 대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처음 본 토론회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당사자로서 기획하고 토론장 및 친교장소 섭외가 만만치 않았지만 지나고 생각하니 제주도와 같은 아름다운 천혜의 섬에서 아무 이상없이 토론회가 잘 마무리된데 대하여 기쁘기 한량없다. 특히, (주)화승인더스트리 CEO인 심영인 사장님을 비롯한 본 기념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도록 모금에 협조하여 주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래 사진은 참여했던 분들이 모여서 촬영한 사진이다.

<전무이사 김정안>

